

기획

국제캠은 쏙 빠진 자회사, 미완의 퍼즐은 맞춰질까

숙제 남은 ‘청소’ 직고용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scene 1. 경희대학교 자회사 대표와 민주노총 대표가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청소노동자 근속년수에 따라 호봉제로 계산해 주십시오. 월급제와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경희대분회 백영란 분회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학교 자회사 대표로 참여한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가 나섰다. “학교 사정도 고려해주시죠. 호봉제 도입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협상은 성공적이지 않았지만 백 분회장의 얼굴은 밝았다. “그래도 소통 과정이 예전보다는 원활해졌어요.”

#scene 2. 용역업체 대표와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 국제캠퍼스(국제캠) 지부 심규갑 지부장이 한 테이블에 앉았다. 단체 협상을 하기 위해서다. “시급 인상해 주십시오.” 심규갑 지부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용역업체 두레시닝 담당자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저희가 학교에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런데 학교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최저시급에 대한 협상도 학교와 용역업체가 다시 얘기를 해봐야 하는 상황에서 심규갑 지부장의 얼굴은 어둡다. “협상을 아무리 한다 해도 학교가 안 들어주면 그만인데 어떡합니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남우근 정책위원은 양 캠퍼스의 이러한 차이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법적 사용자가 다른 간접고용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말한다. 간접고용과 직고용이 무엇이기에 청소노동자들은 그 토록 ‘직고용’을 원하는 것일까.

‘간접고용’은 청소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문제점으로 다가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고용불안이다. 2011년 청소노동자들이 집단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싸우다가 흥의대로부터 2억8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사회혁신을 위한 민간 싱크탱크 희망제작소 임주환 변호사는 “일부 사업장에서는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승계가 이뤄지고 있지만, 계약을 매년 다시 한다고 해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학교에서 일하지만 청소노동자들은 ‘투명 인간’ 같은 존재다. 그들이 당하는 부당한 처우는 학교와 같은 원청에게 보이지 않는



“서울, 청소노동자 직고용했지만 국제는 배제된 반쪽 해결책 : 고용·임금·소속감 문제는 여전히



다. 법적인 사용자가 아닌 학교는 책임에서 자유롭다. 학교가 청소노동자들을 직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원청이 직접 개입하는 순간 ‘불법도급’이 돼 버린다. 학교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입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용역업체를 불러 사태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주문하는 것 밖에는 없다. 법적 책임이 없으니 그들이 처한 부당한 사태를 외면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한 사업장에서 오래 일해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는 현실은 청소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뺏어버린다. 청소노동자들은 용역업체가 바뀔 때 마다 다시 계약을 해야 한다. 기존 근로자들을 ‘고용승계’ 한다고 하지만 근속년수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반쪽자리 승계다. 통상 2년 단위로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근속년수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속년수 미적용은 최저임금 인상분 이상의 임금인상을 할 수 없게 만든다.

하루 8시간 동안 학교에서 일하지만 그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니다. 구청원을 위해 일하지만 여전히 ‘타인’인 것이다. 후마니타스 칼리지 김진해 교수는 희망제작소 사다리포럼에서 “청소노동자들은 매년 반복되는 계약 시기가 되면 업무에 집중하기보다는 계약체결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며 “학교와 용역회사라는 이중 구조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은 노동자들의 소속감을 낮추고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밝힌 바 있다.

간접고용의 문제점에 공감한 우리학교

는 2013년 ‘미화용역직 고용형태 개선연구 TF’를 시작으로 2015년 희망제작소와의 MOU 협정을 거쳐, 최근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까지 이뤄냈다. 전문가들과 언론은 “대학 중 최초로 ‘자회사’를 세우면서까지 직고용을 했다는 것은 학교의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 의지가 확실한 것을 의미 한다”며 “원청 사용자로서의 포괄적 책임을 학교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서울캠의 직고용 사례가 찬사를 받는 동안 국제캠은 직고용 논의의 밖에 있었다.

국제캠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에 소속되지 못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오랫동안 나뉘어져 있던 관리체계이다.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는 특성상 각 캠퍼스의 사정에 따라 운영된다. 하나의 체제로 운영되기 힘들어 업무가 통합되지 못한다. 행·재정혁신지원단 이용성 행정과장은 “작년 거버넌스 개편 때 양 캠퍼스 관리팀 또한 통합에 대해 검토했지만 캠퍼스가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특징 뿐만 아니라 시설의 경우 캠퍼스 간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체계 통합이 어려움을 밝혔다. 국제캠 총무팀 박수인 계장 역시 “자회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캠퍼스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용역업체와의 계약이다. 지난 9월 1일자로 기존 국제캠 청소용역업체 두레시닝과의 계약이 만료되고 다

른 용역업체와 2년짜리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 계약이 끝나는 2년 동안은 청소노동자들이 자회사로 소속을 바꾸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제캠 관리팀 정태일 계장은 “용역업체와 이미 계약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소속된다 하더라도 그 시기는 현재 계약이 끝나는 2년 후일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은 새로 출범한 자회사의 안정화 문제이다. 부산대, 전남대 등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학교들은 청소노동자들을 학교에 직고용하는 형태를 취했다. 반면 우리학교는 대학최초로 자회사를 도입했기 때문에 벤치마킹 할 모델이 없다. 때문에 우리학교가 걷는 이 길이 어디로 이어져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자회사 케이에코텍 조진원 대표는 “가깝게는 근로조건 개선부터 멀게는 대학과 자회사 경영진, 청소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타협점을 만들기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임금인상을 잘 끝내야 국제캠까지 직고용을 넓힐 수 있을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대학은 아니지만 우리학교와 비슷한 모델은 있다. 2013년 서울메트로공사는 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환경’을 100% 출자로 설립했다. 서울메트로공사(현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1~4호선 140개 역사가 모두 현장이지만 ㈜서울메트로환경 안규엽 본부장은 “관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답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팀장 1명 당 2개 역, 60명의 청소인력을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안 본부장은 “현장 관리에서 지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은 있다”고 말했다. 양 캠퍼스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방법을 강구해보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자회사 직고용으로 전환할 당시 기존 용역회사와의 계약이 남아 있었던 점도 우리학교와 유사하다. 1~4호선의 미화직은 자회사 설립과 동시에 고용 전환이 가능했지만, 5~8호선 미화직은 계약기간이 남아있었다. 안 본부장은 “만약 5~8호선 청소노동자들의 계약이 만료되는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한꺼번에 직고용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우리학교의 경우 서울캠 청소노동자들이 직고용으로 전환되던 7월 1일 당시, 국제캠 또한 용역업체와 계약이 두 달 남짓 남아있던 상태였다. 그러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도 이들의 고용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 지점이다.

세계 초일류 융복합 대학

admission.dgist.ac.kr

2018학년도 봄학기
대학원 학생모집

전형일정			
구분	1차	2차	3차
원서접수	6.29(목)~7.13(목)	10.12(목)~10.26(목)	12.14(목)~12.28(목)
면접 대상자 발표	7.27(목)	11.9(목)	18.1.11(목)
면접 평가	8.7(월)~8.14(월)	11.13(월)~11.21(화)	18.1.15(월)~1.22(월)
합격자 발표	8.28(월)	12.4(월)	18.2.9(금)

접수방법
온라인접수 | 홈페이지 admission.dgist.ac.kr

전공별 모집과정	
신물질과학전공	
정보통신융합공학전공	석사과정,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전공의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과정이 아닌 석사과정으로 입학 가능
에너지시스템공학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로봇공학전공	석사과정, 박사과정 ※ 석사과정 학생은 1학기의 수학과목을 마친 후 소정의 절차의 절차를 통해 석·박사통합과정으로 전환 가능
뉴바이올로지전공	석·박사통합과정, 박사과정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DGIST 입학홈페이지 참조

온라인 양식 제출
admission@dgist.ac.kr으로 송부

정학혜택 및 특전

납입금 면제	· 전원 국비장학생 선발
교육 및 연구장려금 지원	· 박사과정 : 13,680,000원 + @/년 · 석사과정 : 7,440,000원 + @/년
DPF 선발 (DGIST Presidential Fellowship)	· 특별장학금 : 3,000,000원/학기 · 연구지원비 : 10,000,000원 이내 · 해외대학 연수비 : 16,584,000원 이내
기숙사 입주	· 전원 입주 가능
해외연수 실시	· 전공별 해외 우수대학 연수 지원 (존스홉킨스, 의과대학, ETH Zurich, UC Berkeley, Virginia 대학) · 국제 심포지엄 참가 지원 등
전문연구요원 편입	· 박사과정 대상 병무청 배정인원 내 편입 가능
국가 거대연구과제 참여	· DGIST 융합연구원 소속 11개 센터 및 연구실 · 한국뇌연구원 · 기초과학연구원(IBS) 식물노화수명연구단

전공 오픈랩

9.23(토) 12:00~17:00
DGIST 컨실리언스룸 L29(대강당) 및 각 전공별 장소

- DGIST 무료 셔틀버스 운행
- 기관 및 입학전형 소개, 전공 소개, Lab Tour 등
- 시외 교통버 지급 및 간단한 음식, 기념품 제공

수도권 면담형 설명회

매월 둘째 주 금요일
DGIST 서울홍보센터(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703호)

- 전공별 교수와의 소규모 면담 운영(약 1시간 50분 진행)
- 사전신청 필수(신청자가 없는 전공은 설명회 미실시)

문의처 T. 053-785-5146~7 | E-Mail admission@dgist.ac.kr

D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